

일본의 양계업

산란계

계란 광고 제2탄

계란을 광고매체로 활용하여 「계란광고」를 실시하고 있는 (사)일본난(卵)업협회와 (주)사니사이드업은 지난 6월 1일부터 두 번째 광고를 시작하였다.

양측은 전국의 다이에·미식가(ダイエー)〔Eグルメシティ〕에서 너트식품의 「닭고기라면」을 스폰서로하여 2월1일부터 첫 번째 광고로 30만개의 계란에 실시하였다. 닭고기라면은 계란과는 관계가 깊은 것으로 판매장 옆에 닭고기라면 판매장을 설치한 점포를 만들어 광고가 부착된 계란의 판매기간 중에 닭고기라면의 판매실적이 평년보다 양호하였다고 한다.

두 번째 광고는 조미료회사(味の素)의 「가조기지느림리스프」를 실시하고 있다. 계란을 광고매체로 착안 것은 「계란의 유통량이 많고 각종 요리에 사용되며 주부가 꼭 구입하는 식재료로서 약 90%의 주부가 요리할 종류를 정하지 않고 슈퍼마켓에 시장을 보기 위하여 오기 때문에 계란을 통신매체로 활용하면 식품구매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일본의 계란 관리체계는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으로 청결하고 안전한 식재료의 이미지도 광고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 광고회사의 의견이다. 계란광고의 효과 등에 대해서는 「관련 상품 판매나 전시대분할 등 소매점포의 협력에 따라 매체의 가치는 높아지지만, 첫 번째 광고에서 점포에도 이익이 있음을 확실하게 되었다. 두 번째 이후에는 유통과 제조회사의 협력을 더욱 활용한 형태로 판매를 촉진하고 싶다」고 희망을 말하였다(계명신문 발췌).



윤 병 선

한경대 친환경농림축산물인증센터 전임연구원
농학박사

난가 4년 전과 같은 폭락우려

배합사료가격뿐만이 아니라 생산자재와 운반비 등도 함께 인상되고 있음에도 계란의 공급과잉에 의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생산가격에 합당한 난가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 특히 동 일본지역에서는 생산이 대폭 증가한 탓인지는 몰라도 도쿄(東京)의 난가는 170엔(1,280원)대의 낮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 JA전농의 계란 본부는 10월9일 수급이 호전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각 생산자에게 「계란의 수급정세와 계획적인 생산」이라는 문서를 통해 이 상태로 급년 하반기에도 난가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2003년과 같은 난가폭락이 또다시 재연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고 모든 생산자에게 감산을 전제로 한 계획생산을 요청하였다.

10월 10일 오오사까(大阪)와 후쿠오까(福岡)에서는 5엔(38원)이 인상된 185엔과 188엔까지 기록되었지만 도쿄는 170엔대에서 유지되고 있다. 동 일본지역에서의 생산량의 과잉이 최대의 난가 하락의 요인이었다.

가정에서의 소비는 보험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원료가격의 상승에 의한 각 식품이 연이어 인상되는 가운데서도 가공용·업무용 계란의 수요마저 감소하여 소비가 호전될 징조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다른 축산물과는 달리 경매를 통해 가격이 결정되므로 생산비가 인상되어도 난가에 전가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계명신문 발췌).



육 계

배합사료 가격 인상

사료의 주원료가 되는 옥수수가격이 바이오에탄올 생산용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생육시기의 기후를 반영하여 인상되고 있고 단백질 공급원인 어분의 가격이 안정되고 있으나 대두박의 원료가 되는 콩의 작부면적이 감소하는 등의 영향으로 인상요인이 되고 있다. 게다가 곡류의 운반비용이 높아지고 환율마저 인상되어 배합사료 가격의 인상을 부추기도 있다.

농협사료의 가격은 작년 4/4분기 1,700엔, 금년 1/4분기 5,500엔, 2/4분기 3,200엔 인상된 것을 포함하여 3/4분기까지 누계 1만 1,500엔의 인상요인이 생겼다.

생산자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료기금으로부터의 보전금액은 평균인상액을 기준으로 3개의 기금에서 보전금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의 통상보전은 대폭적인 인상에 따른 생산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추가보전(4%)의 적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렇게 되어도 생산자의 실질부담은 2/4분기에 비하여 2,000엔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계명신문 발췌).

위생적인 도계처리 연수회

(사)일본양계협회는 가고시마쵸(鹿兒島縣)에서 노계도계업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기술연수회를 개최하였다. 연수회에서는 일본양계협회 전무가 「최근의 양계동향」, 노계도계유통협의회장이 「노계도계업의 문제와 대책」, 아이지쵸(愛知縣)수의사회 계육검사원이 「계육처리장에 대한 방역관리」, 구리치구사장이 「노계도계장에서 소독약의 사용」을 각각 강연하였다.

계란생산농장과 노계도계장이 상호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어 연대를 강화하고 (1) 노계도계장에서의 조류 인플루엔자대책 등 방역관리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하고, HACCP방식 등에 의한 위생적인 처리를 준수할 것 (2) 도계장에서의 소독방법이나 사용하는 소독약도 법령에 근거한 약품을 사용할 것 등이 강조되었다. 연수회의 참석한 50여명은 다음날 일본노계도계유통협의회회원이 운영하는 시설을 시찰하였다(계명신문 발췌).

일본 육계 생산현황

(사)일본육계(식조)협회는 2005년 10월부터 2006년 3월까지 6개월과, 2007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에 걸쳐 전국적인 설문지조사를 통해 육계생산, 가공, 유통현황에 대하여 조사·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중에서 육계 생산비용은 부부 사육관리로 연 5회 입추1회 4만수 사육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출하체중 3kg, 출하일령 52일, 상품화율(출하율에 운반 중 폐사수와 상품부적합수 포함) 98%, 사료요구율 2.05, 배합사료가격 1kg당 (35엔)263원, 1수당 병아리가격 (61엔)458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발표에 의하면 육계 1수의 생산비용은 초생추가가격 62(상품화율 적용), 사료비 215, 약품비 12, 수도광열비 15, 깔짚·잡비 8, 노동비 35, 출하비 16, 계사감가상각비 20, 계사지불이자 3, 계사수선·설비비 7엔으로 총 401엔(3,010원)으로 나타났다(축산산업진흥기구 9월 국내편 발췌).